

One for All, All for One

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,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
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팀의 조화를 추구
하는 듯한 이 말은,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
것을 주저하지 않는 현대의 자본주의사회에서
씩 환영받을 말은 아니다. 하지만 한 사람, 한 사람이 가까이 모두를
위한다면 이는 팀워크의 진수를 보여주는 최상의 표현이 될 것이다.
누가 이들을 남이라 부를 수 있을까. 국내 굴지의 토종 소프트웨어
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의 공공지원2팀은 사내에서도 팀 분위기
중기로 명성이 자자하다. 공공기관과 연구단체의 시스템이 최적의
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팀에는 밤낮
이 따로 없다. 한 명이 맡은 기술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신의 업무
가 아님에도 불구하고, 시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몇
명이고 자원군으로 출동한다.

“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.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라면 직
급을 떠나 누구라도 출선수범해서 해치워 놓는 것이 암묵적인 법
칙처럼 되어 있죠.”

일로 만나게 됐지만 서로 별명을 지어 부를 만큼 회사 동료가 아

닌 대학 선후배 같다는 게 팀의 만행 서정우 과장의 설명이다.
팀원의 애인에게서 항의전화가 올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, 되려 회
사에서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이들의 사생활 공유는 팀
내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뿐 아니라 일에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.
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시니어급 엔지니어를 주니어급 엔지니어가
보조하고 상부상조하는 등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.
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 희식 대신 맛집을 찾아다니는
것도 이들 팀워크의 융통성을 보여주는 대목. 물론 주당들을 위한
특별 2차도 마련돼 있다. 모든 팀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함
께 엮어 나가는 데 숙달되어 있다고 할까.

“총각들이 많아 도통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탈입니다. 회사
근처의 사우나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다반사라 아예 정액권을 끊
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까지 받을 정도였지요.”

인물 환한 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것이 팀의 목표라
는 서정우 과장. 상부상조의 미덕을 아는 이들 팀의 관계는 자신이
꿈꾸는 미래와 회사에서 바라는 목표를 조화시켜 ‘One for all, all
for one’ 이 구현되는, 본받아 마땅한 모범공동체라 할 만하다.

혼자서도 알아서 잘한다는 이들의
칭찬 릴레이(오른쪽에서 왼쪽으로)

조재학 주임 | 오법석 과장님은 인사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팀원을 북돋우시는 분입니다.

김범정 대리 | 착하면 착, 권대원 대리와의 환상 호흡이 있어 즐겁습니다.

김진영 주임 | 술친구인 권영달 주임은 호기심이 왕성한 만큼 일에 의욕적입니다.

서일석 대리 | 마음 잘 맞고 믿음직한 친구, 오골계 김진영 주임은 무슨 일이든 열심히요.

권대원 대리 | 그녀의 휴가 때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된 우리 팀의 우렁각시, 난다조 조재학 주임을 칭찬합니다.

권영달 주임 |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해치워 놓는 보이지 않는 손, 김범정 대리님이 있어 안심입니다.

서정우 과장 | 뒤에서 묵묵히 팀을 서포트하는 행동대장, 서일석 대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.

오법석 과장 |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팀원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가사시는 나름의 카리스마, 서정우 과장님을 칭찬합니다.



★ 유익하고,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-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. 통화 후, 바로 달려가겠습니다. ★ 담당자 : 김지원 (ezmail@empal.com, 02-515-3681)★